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 감옥서신, 3차 세션, 그리스도 찬송가, 골로새서 1:15-2:5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Dan Darko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골로새서 1:15-2:5의 그리스도 찬송가입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옥 서신의 일반적인 소개, 왜 이 서신을 감옥 서신이라고 부르는지 살펴보았고, 서신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 서신이 콜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확립하고 교회 내의 일부 종교적 경향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소개하고 감사와 교회를 위해 간청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즉 감사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실제로 13절에서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과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송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 옮겨가는 거래에서 두 가지 핵심어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구속.

그는 우리를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리스인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런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밝고 빛나는 귀중한 결혼 반지가 2만 달러에 팔렸는데, 길을 잃고 이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고 녹이 슬고 더러워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반지가 무슨 용도인지 묻습니다. 구속의 과정은 그 반지를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과 품질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서 그는 우리를 부패한 상태, 녹슨 상태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의 온갖 것들에 의해 형성된 상태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12절의 끝에서 우리를 이전했을 때, 그는 우리를 빛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다. 녹슨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놀고 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빛 속에서. 그는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래의 일부는 실제로 무언가에 빛을 지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왕국에서 그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빛을 탕감해 줬어요. 알다시피, 저는 노래를 배웠어요. 저는 정확히 어느 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노래를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자신이 갚지 않은 빛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빛을 지고 있고, 갚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씻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주 새로운 노래, 놀라운 은혜를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빛을 갚으셨습니다. 옮겨심으로써 그는 녹슨 못된 것을 본래의 빛나는 상태로 구속하여 우리를 빛의 자리에 두어 모든 영광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빛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부를 것을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만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좌와 주권, 통치자와 권세 등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몸의 머리, 곧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에게 화해시키셨으니,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 아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1 절에 이르되, 전에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악한 행실을 행하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셨노라 하리라. 그러므로 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과 용서를 가져온 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는 화해의 수단입니다. 와! 그리고, 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창조의 만아들입니다. 바울은 이 요점을 지적하고, 이 그리스도 찬송가를 꺼내어 우리에게 화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이 분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때 좋은 상태에 있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상태에 있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그를 통해 우리가 그 장소를 빛의 장소로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죽은 자의 만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조금 뒤로 돌아가서 15절이 교회 역사에서 매우 논란이 많았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만아들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매우 인기 있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인기 있는 설교자 아리우스는 교회를 놀라운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 자신의 가르침 중 하나를 가르치고 실제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절은 이 구절이 실제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리우스에게 아리우스는 여기에 몇 가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그 근거로 그는 창조의 만아들로 불릴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의 15절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의 만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오직 신이 그를 창조했을 때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담이 아니라 신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 존재였습니다. 아리우스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교회는 아리우스가 말한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전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의 핵심 용어 중 하나는 콜로새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이 신학적 틀을 발전시키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일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실제로 낳은 독생자는 창조물의 맏아들입니다.

골로새서 1:15는 존 트레이시의 주제입니다. 그는 이 둘을 결혼시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골로새서를 읽는 방식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에서 맏아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물의 맏아들은 창조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창조물보다 우선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맏아들에 대한 언급이나 언어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창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먼저 태어난 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뜻일까요?

이 구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강의 시리즈에서 앞서 언급한 제임스 던이라는 교수가 영국의 더럼 대학교에서 라이트풋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특정 주제를 그의 해설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던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전의 바울의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썼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순서상 첫째, 첫 열매 로 언급했고 ,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첫째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의 원형적 이미지를 공유할 운명의 가족에서 가장 연장자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를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창조의 맏아들은 학자들이 씨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던이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맏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낳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느 때인가 아이를 가졌고, 예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너무 멀리 끌고 가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Dunn이 말했듯이, 첫째 태어난 자는 창조물 안에서가 아니라 창조물보다 우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두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나타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 우주, 창조된 실체의 전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우월성 또는 그의 탁월성이며 아리우스가 끌어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에 대한 이 논쟁은 콘스탄티노플 바로 밖에서 교회가 삼위일체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4세기의 강력한 문제를 논의하고 실제로 결정하기 위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계적 신학 또는 학문적 환경에서 교리를 연구하는 것으로 부르는 것에 속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아리우스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우리 교회와 신앙 체계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즉 골로새서 1:15에 부분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찬송가를 즐기면서 창조의 맏아들과 죽은 자의 맏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어디에 있든, 앉든, 서든, 들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콜로새서 1장을 읽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 회복력을 갖기 위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차원이나 정신적 과정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글썄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통 오늘날 우리 맥락에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오, 이게 혼란을 가져온다. 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으로 끝맺습니다.

기도에서 저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제가 여기서 제기한 이 질문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들었고, 들은 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당신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다룰 때, 그냥 돌아다니며, 오, 아니, 이건 그냥 쉬운 일이야, 알다시피, 그냥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해.

우리는 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이걸 하고 있고, 저에게 채점할 것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숙제 중 하나를 줄 것입니다.

해봅시다. 콜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소원에서 기독교 이전의 과거와 기독교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그의 목적이 기독교 이전의 삶과 기독교적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숙제입니다. 숙제를 채점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교수님들을 위한 세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채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토론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구절을 살펴보고 사랑, 사랑하는 사람, 진실과 같은 사용된 일부 내부 역학과 단어를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전달하려는 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1장 21절의 그리스도 찬송가에서 무엇을 구축할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음으로 적대적이었으며 악한 행실을 행했지만, 그는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해시켜 기록하고 흠 없고 꾸지람할 데 없는 여러분을 그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와우.

그것을 보세요. 저는 현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때로 , 저는 미래에 대한 제 헌신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개종 전 과거를 정의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사고방식 측면에서 당신은 마음속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행동 측면에서 당신은 사악한 행동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현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의를 컴퓨터에서 듣고 있다면 생각해볼 만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3, 21-23절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방금 보여 주거나 말했던 것 중 일부를 상기시키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 그들의 현재 입장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확립하여 그가 그들을 미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기시키기, 당신은 소외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신은 신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은 신과의 지위나 관계가 없었습니다. 신과 함께 서거나 일하는 것에 관한 한, 당신은 밖에 있었습니다.

사고방식과 진실이나 영적 지혜에 대한 명확성과 지식으로 생각하는 면에서, 그가 앞서 제로에서 언급했듯이, 당신은 마음속으로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것, 사악한 것, 부정적인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악행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여러분은 본래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음으로 적대적이었으며 악행을 행했습니다.

22절, 지금, 지금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그의 육신의 몸에서 그의 죽음으로 화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해되었습니다. 값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화해의 대가를 그의 몸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화해되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과거의 행동, 과거의 행위, 과거의 사고방식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고 꾸지람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만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옮겨지지 아니하면, 미래에 우리가 소망에서 옮겨지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것은 소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창조물과 천국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목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에 확실히 밝히고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이해한다면,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수건을 던지지 않고, 당신을 산만하게 할 온갖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너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의는 24절에서 25절에 일어나는 일에 끌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을 내 육신으로 채웁니다.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그 교회의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24절을 주의 깊게 살피면, 그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가 육체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다는 구절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난을 강조하는 동안, 그는 또한 자신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한 것 중 일부는 당신을 약간 머리를 긁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의 고통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그가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종말론적 세계관과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견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성경 연구 시리즈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사, 페이지, 주장이 나오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가 고난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실제로 그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난이 결국 어떻게 올지에 대한 유대인의 종말론적 틀을 이해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주요한 형태의 고통이 시작되고, 그런 다음 어느 정도의 고통이 실제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 중 일부를 소모하거나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텍스트 중 일부에 있는 일부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하다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투쟁의 관점에서 종말을 생각해 보면, 그는 유대적 종말론적 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언가를 촉발했다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중요한 인물로서의 그의 고난은 그들이 예상했던 일부 일들의 완성을 가져오기 위해 그것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앞서 언급한 영국 학자 제임스 던이 그의 논평에서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이 대화에 끌어들이겠지만, 먼저 휘튼 칼리지의 제 동료인 더글러스 무가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바울이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난에 어떤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고 썼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에게 선포된 환난과 관련하여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Dunn은 Moon과 함께 모호해 보이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촉발하기 위해 견뎌야 할 정해진 고통의 양이 있다는 종말론적 사고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33절에서 43절을 위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첫 번째 촉발 요인을 활성화했지만 그 고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 트리거도 활성화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화해 목적의 마지막 드라마에서 주요 행위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너무나 실제적인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에서 아직 미해결된 것을 어떻게든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구속되고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이 그가 겪으신 고난의 관점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 완성되고 있다고 말하는 묵시적 틀을 암시하는 것이지, 교회의 비전과 전개되고 있는 일, 즉 바울의 사명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고난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기서 알려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실제로 모든 신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시리즈에 대해 생각하고 흥분하게 하려고, 이 시리즈를 계속 따라가세요. 에베소서에서 그는 실제로 신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비의 차원을 설명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1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개요와 함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포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의 선포의 임무에는 사람들이 성숙해지도록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메시지에서 그들이 그의 고난이 그들을 위한 것이며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과 침투를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24 절에서 2절, 5절, 이 일반적인 관찰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실제로 콜로새서 2장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격려되고 사랑으로 뭉쳐져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총명한 확신의 모든 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아무도 가능한 변명으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착한 행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기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완벽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2장에서 그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다루어야 할 거짓 가르침의 요소들. 1장에서 친족 관계에 대한 개념을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콜로새서에 대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3장에도 도달하면 그는 하나님 가족의 허구적 친족 관계를 거시적 가족에서 일어나야 할 일과 연결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4개의 짧은 장에서 실제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1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거나 하려고 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인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의 기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불태웠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연결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이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터져나올 모든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찬송가에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모든 것 안에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총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계속해서 보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했는가. 그의 육신 안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도로서 그가 전하는 고난, 메시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구체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기독교가 결코 쉬운 케이크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다루도록 격려받을 때, 그들은 단지 그들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격려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누구가 되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바라시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투쟁, 모든 도전,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콜로새서를 읽어가며 많은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훌륭한 책에서 몇 가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콜로새서 1:15-2:5의 그리스도 찬송가입니다.